

# 사순절 묵상집

## Devotional for Lent & Easter

### 2025

## 2025 사순절 묵상집 목차

	이영길 목사	권두언	3
3/5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김(조)옥동 권사	다독다독할 수 있지	4
3/6 (목)	남재현 교우	나실인 따라하기	5
3/7 (금)	Joeun Kang (7th gr)	My faith in God	6
3/8 (토)	진정원 집사	40일 동안 걸어갈 길	7
3/9 사순절 첫째주일	박예원 전도사	What Are You Leaving Behind?	8
3/10 (월)	주민정 집사	평화를 꿈꾸는 기도	9
3/11 (화)	김호영/박영롱 집사	다함 없는 예수님 사랑	10
3/12 (수)	Samuel Jang	ISTJ	11
3/13 (목)	채주영 집사	주님이 만드신 삶	12
3/14 (금)	한승희 장로	Random Act of Love	13
3/15 (토)	신영각 집사	재(灰)	14
3/16 사순절 둘째주일	정은택 전도사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15-16
3/17 (월)	James Hong (7th gr)	Discipleship Training	17
3/18 (화)	곽서영 집사	화해와 용서, 위로와 사랑	18
3/19 (수)	박영철 은퇴 장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19-20
3/20 (목)	이정호 교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양	21
3/21 (금)	Elder Sang Kang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22
3/22(토)	박영진 교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23
3/23 사순절 셋째주일	이영길 목사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24
3/24(월)	김지은 집사	새 사람을 입으라	25
3/25 (화)	강문일 집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26-27
3/26 (수)	Phantom Author	In Solitude	28
3/27 (목)	김영화 교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29
3/28 (금)	염순호 집사	내가 만나는 예수님	30
3/29 (토)	Youju Han (6th gr)	My thankful journey with God	31
3/30 사순절 넷째주일	Dr. David Kim	어린아이 같은 어른	32
3/31 (월)	김대식 장로	실천이 따르는 사순절	33

## 권두언

이영길 담임목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1)

콜린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음의 비유로 풀어나갑니다.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각자 형편에 따라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좌석에 따라 각자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괴한들이 나타나서 모두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클래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먹는 것을 비롯 좌석의 위치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같은 운명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비행기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런 비행기를 탄 것 같지만, 실은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class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라는 비행기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class에 속한 분들이 소망의 빛을 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순절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빛을 새롭게 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하늘의 빛을 밝게 비추이는 절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절제하고 구제함의 축복에 동참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세상이라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 보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입니다.

올해도 귀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홍보위원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1 (화)	최학수 집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까, 기다리며 부르짖는자를 도우실까?	34
4/2 (수)	Rury Lee	Sacrifice. Surrender. Hope in God	35
4/3 (목)	한 국 집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삶	36
4/4 (금)	박예원 전도사	성도의 노래: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하는 자로다	37
4/5 (토)	손효정 집사	기쁠때나 슬플때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38
4/6 사순절 다섯째주일	Dr. James McCarty	The God who loves creations	39
4/7 (월)	최희주 집사	선 믿음, 후 경험	40
4/8 (화)	Daniel Choi (8th gr)	My First Journey of Discipleship Training	41-42
4/9 (수)	김문소 은퇴 장로	운전면허증 갱신 단상	43
4/10 (목)	방수영 집사	참사랑	44
4/11 (금)	Elder Sang Kang	The essence of the Body of Christ	45
4/12 (토)	김화옥 집사	한담객설(閑談客說): 짐을 서로 지라	46
4/13 종려주일/Palm Sunday	Rev. David Cho	Loving God and God's People	47
4/14 (월)	박신영 장로	생명의 빛 (the light of life)	48
4/15 (화)	이재익 집사	초심불망 (初心不忘)	49
4/16 (수)	Grace Kim (7th gr)	My Confession - Gratitude and Forgiveness	50
4/17 (목)	홍민기 집사	This is my church. I gotta finish	51
4/18 (금) Good Friday	Deacon Joseph Kim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His greater purpose	52-53
4/19 (토)	박예원 전도사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54-55
4/20 부활주일/Easter	이영길 목사	마지막 아담: 살려 주는 영	56

### 3월 5일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

#### 다독다독할 수 있지

김(조)옥동 권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1-2)

그대 오르는 골고다 언덕에서  
순종의 띠를 단단히 매고  
깊어진 십자가 내려놓지 않으려  
끝까지 견디고 당도할 소망을 안으면  
근심의 표정들 지우고  
피맺힌 그 발자국 따라 계속 오를 수 있지

미움과 의심과 분노를 사랑이란 화로에 사르면  
터진 살 언 땅을 햇볕이  
눈송이 겨울가지 속앓을 다독거리듯  
목마른 그리움  
세상의 갈증을 다독다독할 수 있지

기도의 눈물 무릎을 적시면  
가을 숲 옷을 벗어 마른 풀 덮어 감싸주며  
실비가 새싹을 다독거리듯  
춥고 배고픈 서러움 담고 선  
허영과 욕심의 파도를 다독다독할 수 있지

거짓된 공리를 허물고  
용서가 다툼과 손을 잡으면  
뜨거운 입김으로 여름 햇살 열매를 여물게 하듯  
이별의 씨앗을  
원망의 상처를 다독다독할 수 있지

시지프스의 벽보다 더 가파른  
믿음과 회개 깃세마네 동산에 오르려면  
감사의 기도만이  
십자가 진 등을 다독다독할 수 있지

**나의 기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깨어나는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더해 주사 풍성한 감사로 기쁨을 드리게 하소서.

### 3월 6일 목요일

#### 나실인 따라하기

남재현 교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민수기 6: 1-3)

누구나 한 번쯤 새해 결심을 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운동을 꼭 해야지! 책을 더 읽어야지! 와 같이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을 다짐하기도 하고, 술을 줄여야지! YouTube를 끊어야지! 등 나쁜 습관을 바꾸기 위한 계획도 세워 보았을 것입니다. 새해에 대한 설렘과 함께 지도 한 해 동안 실천할 계획과 습관의 목록을 작성하곤 했습니다.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 목표에 열심이었던 저는 2017년 여름 수련회에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실인(Nazarite)이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자로, 삼손/사무엘(구약), 세레 요한(신약)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일정 기간 또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구별된 자로서 자발적 서원(행 18:18), 부모의 서원(삼상 1:11),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실인이 되었다(눅 1:13-15)고 합니다. 나실인은 포도나무 소산과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으며,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시가 주도하는 이 시대에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실인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이들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난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거야.’라는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저의 나약함을 알았는지 수련회 이후 성령 충만해진 몇몇 형제들이 <나실인 따라하기>를 제안하였을때,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세레 요한처럼 광야에 살면서 매뚜기를 주식삼아 살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지금 당장은 성경 인물들처럼 구별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일 동안 저의 삶 중에 일정 시간, 가장 재미있는 것 하나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일 동안 아침 기도를 드리고, 인터넷 뉴스와 YouTube 보는 것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완주하겠다는 결심보다는 작심삼일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잠이 많고, 매일 노트북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분명 중간에 실패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나약한 의지와 달리, 아침 기도모임에 갈 때 맑은 공기를 마시고, 목사님과 공동체 형제들과 기도를 한 후 연구실로 가는 것이 매우 뿌듯하였고, 이상하리만큼 기쁨이 넘쳤습니다. YouTube를 보지 못하면 심심하고 불안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변에 다른 재미있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삶이 더 여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시작한 일을 통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하루의 일정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나실인의 길로 한 걸음 걷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시 뒤로한 채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괜찮으니, 나실인을 따라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 사탕을 녹여 먹듯 천천히 음미하고 싶은 즐거움을 다 함께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3월 7일 금요일

#### My faith in God

Joeun Kang (7th grade)

“And he said, ‘What comes out of a person is what defiles him. For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an, come evil thoughts, sexual immorality, theft, murder, adultery, coveting, wickedness, deceit, sensuality, envy, slander, pride, foolishness. 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they defile a person.’”  
(Mark 7:20-23)

From the sessions of Discipleship Training, I have learned many things about Jesus and Christianity. I learned that having a firm foundation in my belief in God is important and the importance of repenting of my sins. I also learned that Christianity is the belief in Christ and that only Christ can give us eternal joy, life, trust, and salvation. Also, Jesus died to save us from our sins because people have a sinful nature, but I can build up good habits to turn back to God. A takeaway point from Discipleship Training that I took in mind was, without Christ humans can't grow to a healthy tree, but with Him we can bloom into one. Another point that I learned is that Christ saved each and every one of us because in his eyes we are perfect the way we are, and I shouldn't create a fake image of myself just to satisfy other people's expectations.

After doing the Discipleship Training, I have strengthened my trust in God by reading and learning the lessons the bible displays for us. Jesus proved many miracles to people who followed Him, and saved them too. Jesus would also never leave me behind and will always be there for me because He is my shepherd. He will also guide me through tough times just like He did in the Bible, and will also forgive me when I do bad actions. I will strive to focus on God's own agenda for me, instead of my own image of God, because He always has a plan. Also, even if I am not 100% pure, I will still repent to God about my sins, so I can receive forgiveness. Even when I am in tough times, I will still believe in God and hope to strengthen my faith in Him. And as I move forward, I will keep in mind that Jesus is my savior, and that He will always love me and be there for me.

**Prayer:** Dear God, Please help me remember how much you love me, and please help me strengthen my faith as I grow up. Amen.

### 3월 8일 토요일

#### 40일 동안 걸어갈 길

진정원 집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24-25)

사 : 사실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올해의 사순절  
순 : 순전히 나를 위해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인데  
절 : 절대 순복이 어려운 저 어찌지요? 주님...

뉴욕과 메릴랜드 중간에 ‘펜의 숲’을 창설한 William Penn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No pain, no palm; no thorns, no throne; no gall, no glory; no cross, no crown.” (아픔 없이는 승리도 없고, 가시의 고통 없이는 권좌도 없고, 쓴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제게 사순절이라는 길은 부담이 되고 순복이 어려운 길입니다. 그냥 쪽 뺏은 넓은 하이웨이와 아닌 희생과 어려움, 고통과 불편함, 또 부담이라는 커브가 있는 길입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허영심, 이기심 등 모든 내면의 문제들을 버리고, 건강과 영성, 가족과 이웃을 챙기며,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하는 길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고통과 부활하실 주님을 목상하며 지내야 도착지에 도착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의 길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는 봄>에서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맑아 눈물이 납니다. 살아 있구나 느끼니 눈물이 납니다. 기러기 떼 열 지어 북으로 가고 길섬에 풀들도 돌아오는데 당신은 가고 그리움만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 있구나 생각하니 눈물 납니다.’

부족한 제게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찾는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무릎 꿇게 하신테고, 짧지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테고, 주님의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을 허락하신테니 시인처럼 눈물 나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일동안 걸어갈 순복이 어려운 이 길이 쓸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님에 감동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동역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축복과 영광의 길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 : 사랑으로 언제나 오래 참으며  
순 : 순수하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절 : 절망과 힘들 중에도 기쁨으로 감싸매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사순절 시간을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도:** 3/5부터 4/19까지 잘 걸어가서 부활절 아침이라는 도착지에서는 수고했다 반겨주시는 주님을 잘 만나 뵙기를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 3월 9일 사순절 첫째주일

## What Are You Leaving Behind?

박예원 전도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Jesus, did You really have to die on the cross like that? Was there no other way? Was that truly the best option? Indeed, why did the Son of God have to die in such an extreme and brutal manner?’* As I reflect on this question, I am reminded of the story of Moses and the parting of the Red Sea.

As Christians, we often understand this event as God’s miraculous salvation of the Israelites through Moses. However, from Pharaoh’s perspective—specifically from the viewpoint of his army that was pursuing them—the Israelites were swallowed up by the sea and perished. At this moment,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s was transformed—no longer the people of Egypt, but the people of God. They experienced not just a transition but a transformation in who they are. As they crossed the Red Sea, their former identity as Egyptian slaves was left behind, and as they emerged on the other side, they became worshippers journeying toward the Promised Land, embracing a new identity as God’s people.

God loved us so deeply and desired to forgive our sins that He sent His one and only Son into the world. Jesus lived among us in the flesh, and though He was pure and sinless, He bore the weight of our sins and died on the cross. The key point to focus on here is this: the problem of human sin is so deeply rooted that it requires complete surrender in order to be resolved. Sin is persistent, unrelenting, and deeply ingrained. No wonder the Bible describes it as a roaring lion seeking someone to devour (1 Peter 5:8-9).

In Jesus, we are called to put off our old selves and receive new life. But is the Christian life merely about professing faith a few times and performing a few good deeds? Is that really all there is to it? When we experience baptism, we participat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As we go under the water, we leave behind our past selves, and as we rise, we begin a new life by grace of God. In the same way, whenever we start something new, there is always something we must leave behind.

Now, in this season of Lent, we meditate on Jesus’ journey to the cross. To bring about the newness of the resurrection, to atone for the sins of humanity, and to offer us the gift of a new beginning, Jesus left behind His own life. As we reflect on His sacrifice, what is it that we need to leave behind today in order to live a renewed and transformed life in the Holy Spirit? What will you choose to let go of?

**Prayer:** Give me the wisdom to discern what I must leave behind to live a renewed life and a life following the life of Jesus, and bless me with the courage and faith to act upon it. Amen.

### 3월 10일 월요일

## 평화를 꿈꾸는 기도

주민정 집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고난 가운데에서 신음하며 힘들어하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헛된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헛된 재물과 우상을 쫓아 죄악가운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지구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포성과 탄식의 울음소리를 아시는지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희망마저 무너지는 이들의 아픔을 아시는지요. 혼란과 갈등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슬픔속에서도 위로를 찾고,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증오가 사랑으로 변하여 절망의 땅에 희망이 다시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이해와 공감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손을 맞잡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세상을 허락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지혜를,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평화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강물처럼 흘러 거대한 평화의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 사랑이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불길이 사그라들고, 총성이 멈추고, 대립이 화해로 바뀌는 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 3월 11일 화요일 다함 없는 예수님 사랑

김호영/박영롱 집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이의 총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23)

두려움과 교만 사이에서 앞만 보며 살아가지만  
사순절 기간 시간을 떼어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나는 이 땅에 외인인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시민인요 권속이라 불러주시기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립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믿음의 그물을 내리고  
오늘도 땅을 일구며 참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우주는 감상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나누는 복된 가정되게 하소서.

## 3월 12일 수요일 ISTJ

Samuel Jang

“Commit to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Proverbs 16:3)

I am a planner and a doer by nature. Throughout my life, I have set both short- and long-term goals, then devised a plan to achieve them. If I could not come up with a plan, I pondered what I needed to do in order to conjure up a plan. My colleagues told me that they could easily guess my MBTI type as ISTJ as soon as they met me.

A significant portion of my life has been consumed by my medical training. From my undergraduate years through the completion of my radiology fellowship, I spent 15 years immersed in learning and mastering my field. For many years, I struggled with control, trying to manage every aspect of my life. I thought that if I just worked hard enough, planned meticulously, and stuck to my own strategies, everything would fall into place. But over time, I realized that true success is not defined by my own efforts alone. It comes from aligning my plans with God’s will.

When I started actively committing my work, relationships, and ambitions to God, I started noticing something remarkable: things began to unfold in ways I couldn’t have orchestrated myself. There were moments when I faced challenges, and I felt unsure of the outcome, but because I had committed those moments to God, I found peace knowing that He was guiding me. Even when things did not go as planned, I saw how God’s greater purpose was at work. Through seeking His guidance and trusting in His timing, my plans flourished in ways I never imagined. I came to understand that success is about following God’s direction every step of the way, knowing that He is faithful to make our paths straight.

One verse that particularly speaks to this journey is Proverbs 16:3, which teaches me that surrendering my life to the Lord is not a one-time decision but a daily practice. When we commit our hearts and actions to Him, He leads us with wisdom and grace, ensuring that our plans align with His perfect will. In doing so, we experience the fullness of His best for our lives.

**나의 기도:** 지난 하루 하루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주의와 거짓이 팽배한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바른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3월 13일 목요일 주님이 만드신 삶

채주영 집사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엄마 뱃속부터 엄청나게 사랑받고 건강하게 태어난지 벌써 50년. 긴 세월 주님이 나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심을 느낀다. 태어나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단지 배고프거나 뭔가 원할때 응애응애 소리만 낼줄 알았던 나.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고작 우는 것. 걷고 뛰고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며, 학생 본분에 맞게 생활한 것.

그러다 지금의 신앙을 만나 가족과 멀리 떨어진 이곳 미국 생활을 시작한 나.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짧은 영어를 부끄러워 하지 않고 뻔뻔하게 외국친구들 또 이웃들과 잘 지낼려고 노력했던 나.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같은 우리 아이들을 만나 나. 초보 엄마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의 순간들을 함께 하기 위해 하루 하루 열심히 생활한 나. 늘 내 일상을 열심히 즐기며 행복하려고 노력한 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욕심낼만한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매일 매일 차고 넘치게 감사한 일들이 있고, 천사같은 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 물론 때론 힘들지만...

돌아보면 그렇다.

나의 50년 역사의 매일 매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심을 안다. 인생에 있어 크게 소용돌이가 있거나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은 적은 거의 없지만 몇 번의 크고 작은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지금의 이 크고 작은 행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리라 확신한다. 행복만큼이나 크고 작은 시련을 간간히 나에게 던져주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지금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크기와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잘 컨트롤 하고 계신다 믿는다. 사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시련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가 더 관건이긴 하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만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할 나. 그리고 그런 나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마저 꼭 붙잡고 인도하실 주님. 내년 사순절 즈음에는 또 어떤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다.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나를 소망하며, 이 사순절 기간 온전히 주님바라기를 실천해보고 싶다.

**나의 기도:** 항상 기뻐하며 고마워할 줄 알고, 조그마한 일에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 3월 14일 금요일 무작위 사랑의 행위 (Random Act of Love)

한승희 장로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1서 3:18-19)

‘무작위 친절의 행위 (Random Act of Kindness)’라는 말은 미국사회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으로 설명이 굳이 필요없는 일일 것이다. 흔한 예를 들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눈을 맞추며 웃는 얼굴로 “Hello”라고 인사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일이나 뒷사람의 커피값까지 말하지않고 대신 계산해주어 그 사람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 주는 일 등일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무작위 친절의 행위’보다 ‘무작위 사랑의 행위’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마도 6~7년 전, 펜데믹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루는 우리 부부가 함께 ‘한아름’ 시장에서 쇼핑을 끝내고 주차장에서 쇼핑한 짐들을 자동차에 싣고 있었다. 갑자기 한 미모의 젊은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맛있게 보이는 과자 한 상자를 건네주며 말하기를: “갑자기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요...” 우리 부부에게는 안면이 없는 분이라 당황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의 선물을 받았고, 서로 통성명 할 여유도 없이 그녀는 우리 눈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아직도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선물에 대한 감사 메시지도 보내지 못한 채 그녀의 얼굴도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그 아름다운 ‘무작위 사랑의 행위’는 잊을 수가 없다. 아마도 그녀는 먼 이국 타향에 와서 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고 싶어 했을 것이고, 그녀의 부모님은 이 사랑스런 딸을 무척이나 그리워했으리란 생각이 든다. 그녀는 부모님을 그저 그리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무작위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지 않은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지내며 매일 성경읽기와 참회, 금식, 단식 등을 행하며 지내게 되는데, 여기에 ‘무작위 사랑의 행위’를 더하여 우리의 삶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사순절이 된다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무작위 사랑의 행위’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나의 기도:**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 3월 15일 토요일 재(灰)

신영각 집사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6)

2007년 2월 21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다. 재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한마디로 재의 수요일은 나의 장례식이라. 흙으로 돌아가는, 흙되기 위해 내 몸이 재가 되면 나는 끝인가? 아니, 바로 이 죽음의 흙속에 불(火)이 담겼다. 이 불이 예수님을 만나는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대변한다. 재, 회(灰) 자는 바위집 안에 있는 불(火)이다. 바위집은 예수님을 뜻한다. 사람은 아버지의 물과 어머니의 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불(성령)이 마리아의 몸(물)을 통해 육신이 되셨다. 이 예수님의 불(성령)을 재의 수요일에 만난다. 재의 수(水)요일은 물의 날이다. 이 물의 날에 “영원한 샘물”(예수님- 요 4:14)이 나의 죽은 흙, 또는 재에 부어진다. 내 죽은 재 속에 예수님의 영원한 샘물과 하나님의 영원한 불(성령)이 역사하여 나를 영원한 삶에 다시 옮겨 담은 작업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다. 또한 이것이 기독 신앙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본질이다. 하여 이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잉태되지 않는다. 이 부활이 내 몸에 잉태, 또는 옮겨 심겨진 체험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20-21절에 이렇게 적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사순절 끝에 만나게되는 부활은 곧 내 죽음을 거름으로 삼아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기쁨이라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기쁨은 내 죽음에서 주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접부쳐지는(grafted) 것이라 하겠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6:22)

이 기쁨의 농사를 짓는 사순절이 입춘(立春)과 함께인 것은 봄(春)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三)위께서 아들 인자(人)를 햇빛(日)으로 내려보내 부활을 싹틔게 해 키운다는 하나님 사랑의 축복을 암시한다. 이 부활의 봄을 다윗왕은 일찌기 노래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하나님)과 인자하심(예수님)이 정녕(성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편 23:6)”

**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돌아갈 제 몸에 주님의 영원한 샘물을 부어 성령으로 부활을 키워주시는 사랑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2007년 보스톤한인교회 첫 사순절 목상집에서 발췌)

### 3월 16일 사순절 둘째주일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정은택 전도사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리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어느나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13장 3절-15절)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평생 살아오며 느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다고 한 것을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맞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부활 후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몸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섬김’이며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고 끝이 정합니다.

보스톤에 온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석사 생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곧 자녀도 태어나니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스톤은 참 신기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해온 강원도 시골과는 다르게 누구를 만나도 서로가 바쁠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능력이 출중하고,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교육과 눈치, 처세와 관계 맺음도 대단히 깔끔하다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각자의 선을 넘지도 않고, 서로의 바쁨을 존중하기에, 상대방의 시간을 최대한 뺏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 결코 그냥 넘기지 않고 기어코 다시 보답을 받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본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지 뽐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것에는 나름대로의 근거도 확실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처럼 제게는 느껴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저는 이런 문화 속에서 종종 친구와 신앙에 대한 속 깊은 얘기 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믿음 생활이 대단히 사적인 것이 된 것 같아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해 물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질문을 그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 3월 17일 월요일

### Reflection on Discipleship Trainings

Jame Hong (7th grade)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During the weeks of Discipleship Trainings, I thought that I was not going to learn that much about God and Jesus and what they did and why they did it. But as we went on with it I learned many things about God and how much he loves us.

At the beginning, I thought that Bible reading was boring and I figured I'd probably forget to read it every day. But over the past few weeks, I have actually found it enjoyable. The Bible has become a big part of my life and I know I will carry the lessons I have learned with me.

During this time, I have learned many things that will probably help me in life if I actually believe it. Speaking of believing, I did learn that I must believe that Jesus is Not just the whole world's savior but MY savior. I have also learned that he is 100% human and 100% God. In order to be saved, we must be saved by Jesus and believe that God has to come to us before being saved. I also learned that God doesn't need our work to save us because no matter what we do, it will never be able to be compared to God, but it doesn't mean that we don't have to do anything; instead, we could use our energy to help our friends and neighbors. We still get to go to heaven because of grace. Grace is when we are given something by God even though we don't deserve it.

There is also Justification which is when God declares us holy and righteous because of Christ's blood. Repentance is when you turn back to God after making a sin. Another important concept I have grasped is that you need to be born again which is resurrection. Without resurrection, Christianity would fall and collapse. Sin is a barrier that separates us from God, which is the whole point of why Jesus came; he came to rescue us from sin so we could go to heaven. Imagine you are a tree, and you bear fruit. The fruit you bear is either good or bad—good because of Christ, and bad because of sin. We must remember to think about what we're going to do and if it would be a sin or not. The thing that stuck to me the most is that bad things happen and that doesn't mean that there is no God. Because Bad things happen to all of us and we still go to church and we still believe in God. It's a reminder that our faith doesn't depend on the good or bad circumstances around us.

And lastly, I think it is important to mention that Pastor Euntaek owes us chicken!

**Prayer:** Thank you so much for letting us have this time to read the Bible and pray together. Please let us remember that you are everything and the highest. In Jesus's name we pray, Amen

이런 문화에서 이따금씩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더 유능해지고, 능숙해지고, 똑똑해지고, 유창해져야겠다. 이런 문화적 기대를 완벽히 부응하는 사람이 되면, 더 섬기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과 더 잘 소통하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섬김을 위한 능력이 발전된다면 너무나도 좋긴 하겠지만, 종종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를 몰고가다보면, 섬김을 위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꽤나 맹목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마주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섬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큼 공허한 사역이 없겠지요. 작년은 이런 고민을 하며, 그러한 유혹에 저항하면서도 그러한 저항이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지 않기 위해 주어진 것들은 성실하게 해내려고 노력하기도 했던..그렇게 분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더욱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C.S.Lewis는 우리가 들의 백합화처럼 살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신체 조직도 백합화처럼 만드셨어야 하지 않냐고 내뱉고픈 유혹을 종종 느낀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삶의 두께가 성도분들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고 올바른 것인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만큼 신앙과 인격도 더 깊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다니던 금요기도회에서 보았던, 세상 풍파를 다 거친 분들이 자신들의 애환에 빠져있기보다 누구보다 기쁘게 찬양하던 그 고백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올 한 해는 진정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자랑인, 그런 배짱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더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룩한 낭비에 어떠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Lewi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elying on God has to begin all over again every day as if nothing had yet been done.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으로 만족을 찾는 연습을 하다보면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요. 마침 묵상 글을 적으며 듣는 찬양이 묵상의 내용과 잘 어울려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 3월 18일 화요일

#### 화해와 용서, 위로와 사랑

곽서영 집사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로마서 5:5)

어렸을때 ‘보람된’, ‘의미있는’, 또는 ‘뜻깊은’과 같은 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말들조차 잊어버린지 오래 되었고, 모든 시간들을 그런 수식어로 묘사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2023년 1월부터 갑작스럽게 섬망 증세를 보이셨던 아버지가 2차 뇌경색으로 말씀도 못 하시고, 음식도 못 드시고, 혼자서는 거동조차 못하시는 처지가 되셨을 때, 과연 우리를 알아보시는지도 의문이었고,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다. 고통받으시는 안타까운 순간들마다 하나님께 물었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까?’ 라고.

돌아켜보니 그 당시 나는 내가 기억하는 한, 가장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보냈다. 당신의 얼굴이나 손발을 씻겨 드리기도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드리기도 하고, 좋아하시던 영화 음악이나 가요를 같이 듣기도 하고, 김홍도의 미술 작품 책을 읽어 드리기도 했고, 난생 처음 아버지와 바둑을 배우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해 드리면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었다. 그 시간들은 아버지와 나와의 화해의 시간이 되었다. 한국서 온 동생도 아버지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와 용서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보내드릴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더구나 기독교 학교에 재직하면서도 믿음 없는 세레인이셨던 아버지는 임종을 몇 주 앞두고 방문하신 목사님의 얼굴을 뵈자마자 환한 웃음으로 반기시고, 말씀과 기도를 받으시면서 당신의 임종을 준비하셨다.

보람된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헛된 것 같은 시간이 있어야 하고, 뜻깊은 시간들에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렸을 때 꿈꾸었던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나의 기도:** 유혹도 많고 재앙이 가득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 3월 19일 수요일

####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영철 은퇴 장로

“하나님이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27-28)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은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gene/유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coded message 형태로 우리 몸안에 들어있다 할 수 있겠는데, 생명과학에서 gene/유전자는 긴 DNA sequence의 작은 functional unit (i.e., enzyme을 만드는 DNA sequence unit)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을 만드는 작은 유닛들이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재탄생의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 몸을 항상 새롭게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영구하고 multi-dimensional한 분이라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 생물학적, 수학적, 또 화학적으로 접근하여 이해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몸에는 A, C, T, G 로 구성된 message가 있습니다. 이 message는 하나님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영원하며 행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A, C, T, G 로 구성된message의 functional unit 은 아래와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생물학, 의학, 유전학 - Gene/유전자
- 신학 - 하나님의 말씀
- 수학, computer science - A, C, T, G로 coded application
- 화학, 생화학 - Adenosine, Cytosine, Thymine, Guanine으로 구성된 DNA sequence

신학은 영어로Theology 라고 불리는데, Theo는 그리스어로 God이란 뜻이고, logy는 the study of입니다. 즉 Theology 는 the study of God 이란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기에 우리 몸안에 있는 coded message 도 결국 하나님의 message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smart phone을 많이 사용하므로 수학, computer science의 coded app 을 예로 들어 우리 몸안의 하나님의 message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지구상의

### 3월 20일 목요일

###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양

이정호 교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많은 고난을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해 겨울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도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 마디마디마다 사무치고, 이러한 죄인을 살리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참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도 부여주셨습니다. 당시 어떻게 기도할 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제가 알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허락하신 자리에서 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살아가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강하게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곤 합니다. 비록 중간에 방황을 하며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저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렇게 돌아온 제게 마음 속 알 수 없는 부담감을 주셔서 찬양팀에 지원하게 하시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찬양팀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연구원으로 제약회사에 취업해 이제 막 결혼하고 자리를 잡으려는 그 때 갑자기 미국행을 허락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으로 저와 아내의 마음에 결단을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앞에 어떤 길을 예비하셨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처음 미국에 왔던 2016년 여름, 6년의 시간동안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알지 못해 힘들어하며 광야와 같았던 시카고에서의 삶. 예상치 못한 보스턴으로 터전을 옮기게 하시고, 이 곳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와 인생길을 돌이켜 보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나를 이끄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 놓였을 때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비록 아직도 미련한 저는 그토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의심을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믿을 수 없지만, 사랑과 은혜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어떤 때는 마음에 알 수 없는 부담감으로, 또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가야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여정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동행하고자 합니다. 그 길이 비록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주의 제자되길 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아보이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81억명의 인구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행동력있는 말씀이 후손에게 영원히 전달되며 빠르게 duplication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과학에서는 영원히 빠르게 duplication하는 gene action으로 볼 수가 있고, computer science에서는 coded app 의 빠른 duplication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24년 1분기에 6010만대의 smart phones를 팔아 세계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짧은시간에 6010 만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이유는 automation과 coded apps의 rapid duplication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gene이 duplication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duplication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널리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Smart phones를 생산해내는 Automation의 과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많은 부품들이 공장에 도착하여 조립될 때 robot이 사용되는데, 이 robot을 조정하는 것은 2 codes (0,1)을 사용하는 computer software 입니다. Robot이 phone을 조립하고 나면 많은 application software 가 phone에 loading됩니다. 이 software 들을 우리는 2 codes 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App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에 사용되는 4 codes로 적혀진 유전자가 바로 이런 App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몸안의 세포들은 영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사이클을 무한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병을 얻게 됩니다. 예를들면, 백혈구는 virus나 bacteria와 같은 이물질과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 하루 생산량이 100 billion 정도이고, 수명은 약 13일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빠르게 백혈구를 생산하여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 만세 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그 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높이 찬양하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귀히여기시어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 후세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새롭게 창조되어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며, 당신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하며 이 사순절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들이 제한된 능력을 가진 것을 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학적, 생물학적, 수학적, 화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3월 21일 금요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Elder Sang Kang

“You shall not take vengeance or bear a grudge against any of your people, bu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 am the LORD” (Leviticus 19:18)

As I read or watch today’s news, I can’t help but ask, “Where is love and justice in this world?” I don’t need to name the many man-made tragedies and injustices happening around the world—they are too numerous to count. And while it’s easy to place blame in different directions, I also have to turn inward and ask myself: *Am I doing something about these struggles, or do I merely see them as distant troubles? Am I praying for them with urgency? Am I giving to causes that bring relief? Am I sharing these needs with others, encouraging support?*

I must confess—I am failing miserably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Lent is so meaningful to me because it reminds me of Jesus’ sacrifice—His death on the cross for me, an undeserving sinner. But it also reminds me of His resurrection, the victory that assures me I worship a living God. However, this season of Lent also brings a painful realization: my failure to act meaningfully in response to the suffering around me does not sit well with me.

As a follower of Christ, I am called to do better—not because my actions earn His love, but because I have already been loved beyond measure. His grace compels me to respond.

This Lent, I am listening. I want to hear what Jesus is saying to me. And I pray that my heart will be stirred to not only reflect but to act.

**Prayer:** Lord, Help me I can be listening ear and helping hand in this church

3월 22일 토요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박영진 교우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전도서 12:1)

청년의 때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가득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로부터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예배에 소홀해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대학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신앙생활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신앙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가장 친했던 친구와 같은 대학, 같은 기숙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며 찬양팀으로 섬기고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세상의 즐거움에 익숙해져 천국에서의 기쁨보다 세상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고, 제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까지도 저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 주었으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청년의 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약기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 3월 23일 사순절 셋째주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영길 목사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 4:3-4절)

절제를 잃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속성까지도 자신의 칼에 덧 입히면서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처럼 보일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요나의 진면목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이제 자기 발로 걸어서 니느웨까지 오게 해 주었더니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 가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숨을 거둘수 있는 칼의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니느웨에 사용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칼로 자기의 목을 잘라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광기를 부리는 것이 옳으냐?”

조금 의역하면, “네가 나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옳으냐?”

이제 요나의 진면목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자기의 칼을 장식한 나쁜 선지자입니다. 그 칼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콧속 찌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 자율수 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아직 삶속에 절제의 덕은 쌓여 있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절제가 금방 우리들의 삶속에 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 회개, 절제, 구제의 덕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괴테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절제는 성령의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은사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열매는 시간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8,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러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갈라디아서 5: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는 하루 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도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40일간 절제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40일간의 시간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제의 열매는 삶에서 맺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03/2024 사순절 셋째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 3월 24일 월요일 새 사람을 입으라

김지은 집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4)

매일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도 감정에 휩쓸리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며,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행동을 반복할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청년부시절 금요예배에서 들었던 말씀 중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을 입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마치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신앙도 매일 새롭게 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 내가 완전히 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첫째, 굳어진 마음 때문일 때가 많다.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지만, 점점 무뎠고 차가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나는 이미 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둘째,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뎠을 때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작은 타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 작은 상처도 방치하면 덧나듯이 죄도 빠르게 돌이키지 않으면 나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셋째,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갈 때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고 싶을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미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신다. 우리는 완벽하게 변할 수 없지만,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배우는 과정이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완전히 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나는 자주 실패하고, 어제 다짐했던 것도 오늘 또 어길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다시 새 사람을 입으려 한다.

오늘도 나는 연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길 소망한다.

‘새 사람을 입자.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옷으로 덮자.’

**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무뎠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 3월 25일 화요일

####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강문일 집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39-41)

2007년 이맘때 논산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짧은 머리마저 가르는 한겨울의 칼바람은 세상과 나 사이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2년 동안 꼼짝없이 군인이라는 차가운 현실은 나를 몸서리치게 했다. 육군 훈련소에서 맞이한 첫 주일, 초코파이로 부족한 당을 채우겠다는 소박한 마음을 안고 연무대 교회에 갔다. 나보다 앞서 군복무를 마친 신앙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육군 훈련소에서의 예배 한 번이 수련회보다 뜨겁다고 간증했지만, 내게는 이제 막 사회로 복귀해 군기가 덜 빠진 말년 병장들의 허세 어린 증언일 뿐이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강단에 채 오르시기도 전에 내 모든 편견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고, 어느새 나 또한 실로암 내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매주 대학부 예배에서 보컬과 코러스, 다채로운 악기로 구성된 찬양팀의 인도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던 때조차 느끼지 못했던 뜨거운 감정이 통기타 하나로 연주되는 담백한 가락으로부터 피어나고 있었다. 어찌면 당시에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막사를 나서야만 하는 처지였고, 가만히 있어도 몸과 마음이 추웠으며,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새벽은 오지 않았기에 주님으로부터 여명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전역 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덕(?)에 이제는 해 뜨기 전에 나갈 일이 없고, 어둠에 묻히거나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견딜 이유가 없으며, 울음소리는커녕 살아있는 닭을 볼 기회조차 없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내 간사한 마음은 연무대 교회에서 처음으로 실로암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때만큼 뜨거워지지 않는다. 밝고 따뜻한 곳에 몸을 누인 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은 침침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광명을 찾지 못한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오셔서 빛을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권위를 세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메시아의 임재를 볼 사람이라 여겼지만, 율법의 형식에만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새 계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 주일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필요할 때는 기도하며 경건한 척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하는 나 또한 눈뜬 소경이며, 율법에 정통하다는 이유로 특권 의식에 취해 정작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별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는 휘황찬란한 도시의 조명 때문이라 한다. 돌이켜 보면 그 해 추웠던 겨울 논산에서는 별 헤는 여러 밤을 보냈고, 달빛도 별빛도 생각보다 밝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고는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명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또한 너무나 밝고 명량한 세상 속에서 온갖 반짝이는 무언가에 내 눈이 멀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삶에 눈이 멀어 정작 복된 삶을 허락하신 분을 망각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야 하고, 치유 받기에 앞서 자신의 아픔을 인정해야 하듯이, 나 또한 눈뜬 소경임을 고백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실로암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생명을 보게 되리라 믿는다. 내 눈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무엇보다 내 마음이 그분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심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 3월 26일 수요일

## In Solitude

Phantom Author

“For God alone my soul waits in silence; from him comes my salvation.”  
(Psalm 62:1)

Teach me, in waiting  
To soften my noise  
And gather my focus  
On You

Engrave deep within me  
The habit of listening  
A practice of waiting  
With You

Teach me, in silence  
The tone of Your voice  
The beat of Your heart  
The tune of Your thoughts

And temper my timbre  
To join in Your song  
In harmony, fully  
With You

Teach me, in stillness  
The hue of your love  
The dance of your fire  
The colors of heaven

That I may not shadow  
But forward your light-  
A torchbearer only  
For You

In precious seclusion  
I wish not to ask for  
An answer or blessing  
From You

But to simply approach  
In solitude waiting  
Expectantly, Father,  
For You.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each us to wait and grant us precious moments of solitude with You. Amen.

### 3월 27일 목요일

##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김영화 교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42)

“왜 그런 거죠?” “왜 이제 와서 다 틀어지는 거죠?”,  
“그동안 원하고 기도했던 것, 이뤄주시는 중 아니었나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 목표를 이루게 해주세요.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해 줘!”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 불편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더 세분화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저는 당연히 목표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다들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없을까 고민하다 결국 ‘왜 나만 기도 안 들어주냐?’며 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제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2년 전, 3개월간의 해외 출장 중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어 응급실에 갔고, 기흉으로 인해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회사도 두 달 넘게 휴직하며 후유증과 싸웠습니다. 그동안 계획한 커리어패스가 틀어졌고, 맡았던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장기간 출장 동안 아이들을 혼자 돌본 아내에게 선물은 커녕 병간호까지 맡겨야 했습니다. 그때 ‘뭘 잘못한 건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했던 업무는 업황 변화로 취소되었고, 제가 새로 맡은 일이 회사의 주력으로 변화했습니다. 또한 기대하지도 않았던 Visiting Scholar에 지명되었고, 덕분에 보스턴에서 1년간 많은 지원을 받으며 잘 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운 담배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스턴한인교회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감동적인 부부 청년부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의지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통해 불안과 의문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려 저를 보스턴으로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처음 계획한 것과 목표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목표조차도 세우는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세우는 목표가 하나님의 것인지 묻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는 분명 선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주님, 제가 스스로 만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맑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만든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 3월 28일 금요일

#### 내가 만나는 예수님

엄순호 집사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시편 23:6)

2010년 즈음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청년 2부에 출석하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 찬양팀의 일원으로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강사 목사님께서 “Have you ever met or seen Jesus?”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본 적이 있다고 확신있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출석해 왔지만, 성인이 된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었기에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교회를 간 적도 없고, 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간 곳이 교회였기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없이 교회만 왔다갔다하는 저의 Church goer의 삶은 보스톤한인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졸업 후 청년 1부에 가입하지 않고 1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서 점점 더 교회에서,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몇 년 후, 청년 2부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출석했지만 보스톤한인교회는 마치 고향처럼 따뜻하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위해서 다시 시작한 신앙생활이었기에 나름 열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신앙 활동과 교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기에 ‘내 신앙이 아직 턱없이 미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 슬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보건데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청년 2부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오셨음을 확신합니다. ‘돌아온 탕자’였던 저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통하여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 여러 만남을 통해 저는 신앙인으로서 아주 조금씩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주변의 계산 모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교회와 예배 또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여러 제직분들과 교우님들, 발로 뛰며 수고해 주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교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을 통해 많은 도움을, 가르침을, 웃음을, 슬픔을, 행복을, 또 힘든 시험까지 던져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늘 웃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구절을 배우며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길 원하는 학생들, 울동과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met or seen Jesus?” “Yes! I see Him every time and everywhere in my church -through worship, in the faces of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Word, and in the love we share.”

예수님의 집, 이곳 보스톤한인교회 안에 머물때 저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힘들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열심히 섬기지도 않아 많이 부끄럽지만,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은 늘 탕자같은 저를 어루만지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의 집이 곧 너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이곳 예수님의 집이야말로 제가 늘 있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깨닫으며 이번 사순절 기간 게으름피지않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나의 기도:** 날씨가 추운 이 계절에 저희들의 몸과 신앙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 3월 29일 토요일

#### My gratitude as a Christian

Yooju Han (6th grade)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Psalm 107:1)

Life is full of challenges, joys, and uncertainties, but my faith in God remains the foundation of my strength, purpose, and gratitude. Being Christian isn't just a title or label to me—it's a way of life. It's the way that shapes me into a better, more purposeful, and more grateful person. And it's all because of God.

One of the most remarkable ways God affects my life is through His constant love and grace. No matter what mistakes I make, I know that He forgives me and continues to mold me into a better person. His unconditional love gives me peace, knowing that I am never alone. In moments of hardship, struggle, and fear, I turn to Him, and He provides the faith and strength I need to keep going.

My faith also influences the way I treat others. Jesus taught us to love our neighbors, enemies, friends and family- to show kindness, to forgive, and to extend grace. Because of my faith, I want to become more compassionate, understanding, and patient with the people around me. My faith reminds me that every person is valuable and worthy of love from God, just as He loves each of us unconditionally.

In the end, God's presence in my life is beyond measure. He gives me strength, love, and guidance, helping me grow each day. I am thankful for the privilege of living as a Christian, knowing that my faith brings me peace, purpose, and an everlasting hope.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endless love, guidance, and the many blessings You have given me. Please help me trust Your plan, walk in faith, and show kindness to others. Strengthen me in difficult times and remind us that we are never alone. May our lives glorify You in all that we do. Amen.



## 3월 30일 사순절 넷째 주일 어린이와 같은 어른

Dr. David Kim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도리어 낮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높은 것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우리로 높아지게 하고 커지도록 부추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나이가 많고, 직장이 좋고, 물질이 많고, 권력과 인기가 많으면 이 세상은 그 사람을 크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높임에서 돌아서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낮아지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고 낮은 곳에 두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내세우고자 하는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을 가난하게 비우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릇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2월 25일 설교문 중에서 발췌)

## 3월 31일 월요일 실천이 따르는 사순절

김대식 장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17)

지난 대강절, 예배 인도를 맡으며 매주 성경을 찾고 기도문을 준비하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 작은 실천이 이번 대강절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따를 때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전에는 금식이나 특별한 기도회를 때때로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대강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직접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작은 선행을 실천하기,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더욱 살아납니다. 이번 사순절, 작은 실천을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 이 사순절에 저의 마음을 열고, 작은 결단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실천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 4월 1일 화요일

###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실까, 기다리며 부르짖는 자를 도우실까?

최학수 집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먼저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도 움직인다 vs.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안수집사가 되고나서 한참 동안 고민하던 질문이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질문에 오늘도 답을 구해보다. 우리는 선조들이 성리학에서 다루었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나무위키에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Man proposes, God disposes)’는 뜻의 한자성어로 해석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있는 이 문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주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게하는 동력을 심어주는 대표문구이다.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대를 아우르게 했던 진인사대천명. 그렇다면 신학에서도 진인사대천명은 진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톤은 세상에서 이루는 만큼 천국에서도 쌓여갈 것이라는 뉘앙스가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분이 아니었던가? 특히 시편 40장 1-2 절은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은 기도로 울부짖으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신다 라고 적고있다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He lifted me out of the slimy pit, out of the mud and mire; he set my feet on a rock and gave me a firm place to stand.*). 결국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이 완벽하게 무너져내린 무능한 자신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이것이 힘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며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아닐까? 요한복음 5장 5-9절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야말로 도움이 절실한, 남들에게 뒤쳐져 희망이라고 보이지않는 38년 된 병자를 캐주얼하게 말씀 한 마디로 고치시는 장면도 낮은 자, 없는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우선으로 도우시는 예수님임을 전하고 있다.

서두에서 던진 오래된 내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루 이틀에 찾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말고 부딪혀라”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하다. 주님의 메시지 붙잡고 한층 더 성숙한 고민을 해보는 사순절을 지내보고 싶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빌 4:13”

**나의 기도:** 오늘도 염려가 많은 삶이지만, 불안하지 않은 삶이 되길 기도한다. 항상 어려움이 닥쳐야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는 인생이지만,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는 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아멘.

## 4월 2일 수요일

### Sacrifice. Surrender. Hope in God.

Rury Lee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Philippians 2:8)

A few years ago, while I was still single and living in Seoul, I found an old diary that belonged to my mother. The cover read 아기 일기 (Baby Diary), with the first entry dated 1992—the year she discovered she was pregnant with me. Realizing this was a journal she had kept throughout her pregnancy, I closed it and decided that I’d reopen it again when I was expecting a child of my own.

Fast forward to 2025: I am currently 9 months pregnant with my first child, just as my mom was 33 years ago. As I read through her journal entries one by one, I am most touched by two things. First, how hard she tried to maintain a positive mindset and to “only think beautiful thoughts” despite her unfounded fears of being an inadequate mother and the looming pain of labor. And second, her deep longing for me to know God, the One who had been faithful to her throughout her life.

As my due date approaches, I find myself mirroring so many of the same emotions and desires my mom had in her final days of pregnancy. I stand in awe of the countless women before me—including my own mother—who have endured this beautiful yet harrowing experience of childbirth. At the same time, I am filled with dread at the inevitable ordeal ahead. I even ask my husband Eun-taek (only half-jokingly) if there is *any* possible way *he* could give birth to this child instead of me. I cannot wait to meet my baby and show him everything I love about this world. More than anything, I want to pass down the greatest gift my parents gave me: a relationship with Jesus. But at the same time, I really wish I could somehow skip the labor—the hours of pain, the possibility of surgery, and the permanent mark it may leave on my belly.

I wonder if Jesus felt a similar mixture of fear and anticipation as he was praying and crying out in Gethsemane, “*My Father, if it is possible, take this cup of suffering from me! Yet not what I want, but what you want.*” I know. I am a little embarrassed by how dramatic I sound—perhaps even ridiculous—to draw this parallel between childbirth and the crucifixion that redeemed humanity. But for someone who has never been hospitalized or undergone surgery, I feel as though I, too, am in my own Gethsemane, about to make the biggest sacrifice of my life for this baby.

Sacrifice. Surrender. And hope in God. As I reflect on this season of Lent and anxiously await the day I will give birth, I am reminded to follow Christ’s example, His ultimate sacrifice and unwavering trust in the Father’s plan. In my own small way, I am learning to walk in His footsteps, surrendering my fears and trusting that God will be with me and with my child for all the days of our lives.

**Prayer:** Dear Lord Jesus, help us to embrace our own Gethsemanes with courage, knowing that through surrender comes the fullness of life in You. In Your precious name, Amen.

## 4월 3일 목요일

###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삶

한 국 집사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31)

올해 목표중에 하나가 매일 8000보 걷기입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연말까지 1년 채우기가 목표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매일 걷기를 제 작년부터 해오고 있고, 첫해는 제법 잘 해서 7일 빼고 358일을 목표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국 방문 일정으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지만, 이번 해에는 꼭 이 목표를 이루겠다고 다시 다짐해봅니다. 사실 걷는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걸을 때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나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이 안 풀려 힘들 때도 찬양을 들으며 걷다 보면 왠지 하나님께서 저의 힘듦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더 시작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 관련 실험을 하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다 보면 거의 열에 일곱은 소위 ‘깡’, 실패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실망도 많이 하고 ‘왜 생각처럼 안되지?’ ‘뭐가 잘못됐지?’ 하는 마음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워낙 실수도 많이 하는 편이라 안된 이유를 곱씹어 보면 뭘 안 넣었거나 다른 걸 넣었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며 ‘이건 나랑 안 맞아’ 하며 푸념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푸념들이나 스트레스들을 찬양을 들으면서 걷는 걸로 푸는 거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상한 심령을 다 받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흥얼거리면서 걷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해결해 가는 문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수수께끼라고 생각을 하니, 힘듦보다는 ‘어떤 문제를 내 주셨을까’ ‘이 속엔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실험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고 실망하거나 체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작년에 칸쿤으로 가족 여행을 갔었을 때, 그곳 리조트에 아주 멋진 수영장이 있어 아내와 딸과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도 즐거웠지만, 저의 기억 속에 가장 선명히 오래남았던건 바다에서 딸과 손잡고 파도 넘기를 하며 놀았던 기억입니다. 바닷물도 투명해서 아름다웠지만, 저희한테 다가오는 파도의 모양이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를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쩌면 이젠 하나님이지기에 하실 수 있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 가는 삶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때론 제 생각과 같지 않음에 또한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 분노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지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온전히 즐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 4월 4일 금요일

### 성도의 노래: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하는 자로다...

박예원 전도사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8b~10)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요케하는 자로다

[성도의 노래, 어노인팅]

이 찬양을 처음 접한 건 4년전 기아대책이라는 한국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비영리재단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 속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 세계 선교사들이 부르는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함께 위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부르시는 영상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믿음을 실천하며 하루하루 아픔을 마주하면서도 성실히 기쁨으로 살아내는 선교사님들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삶으로 불려주시는 모습이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 기아대책 웹사이트로 들어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정치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 국가명조차 밝히지 못하는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 <사랑의 동전 모으기>라는 모금 활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후원이 필요한 곳에 보내곤 했습니다. 이 찬양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우리도 무언가로 답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담당하던 어린이 부서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동안 동전을 모금하여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목상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삶을 또한 목상하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계신 자리에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우리의 공동체, 사회, 국가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 곳곳에 계신 선교사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간 기도의 지경을 더욱 넓히고 기도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도 전세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소서.

## 4월 5일 토요일

### 기쁠때나 슬플때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손효정 집사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13)

주일학교 킨더반은 요즘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벌어지는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 매일 수업을 마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만을 굳게 믿고, 주님 말씀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매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누는 기도이다.

그러나 과연 나는 이 기도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을까? 나의 일상은 나의 기도와 얼마나 닮아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비몽사몽 양치질을 한다. 거실로 나와 블라인드를 열면 유리창을 통해 밀려드는 아름다운 햇살과 무척이나 상쾌한 아침 공기가 나를 반긴다.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게 된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피부 세포까지 깨우는 커피 향에 흠뻑 취해 또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내뱉는다. 사실 매일의 아름다움과 소소한 행복에서 이어지는 감사 기도는 나에게 그리 어렵지 않다.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나는 그때도 감사기도를 외치고 있을까? 내 삶이 어지럽고 여유롭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지켜볼 때, 내 마음이 시리다 못해 얼어붙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처참하고 비극적인 나라 안밖의 소식을 접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감사함을 외치며 주님을 찾고 있을까? 주님을 찾는 내 마음에는 그분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얼마나 가득할까?

기쁠때나 슬플때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다. 나의 웃음과 눈물 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싶다. 아래 찬양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의 기도:**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 4월 6일 사순절 다섯째주일

### The God who loves creations

Dr. James McCarty

“Jesus spoke to them, saying, “I am the light of the world. Whoever follows me will never walk in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ohn 8:12)

We were created for love and yet we so often live against this fundamental reality. But God’s grace breaks into this world in those moments where love is real, it is tangible, it is prodigal. God’s grace breaks into this world when we finally feel seen. Or when we are cared for. Or when we are able to go beyond ourselves to care for another. God’s grace breaks in when the sick are tended, when the hungry are filled, when the prisoner is released, when the heart is moved by beauty. God’s grace breaks into our worlds and lives when we open ourselves to love, large or small. Extraordinary or ordinary. And it is in those moments that we are what we were created to be—givers and receivers of love. And being what we were created to be is a grace that often feels like a miracle.

God so loved the world. The God who is love so loved the world that that same God came into it to save us from the deaths we were living to have everlasting life today and tomorrow. God so loved the world that even when we would choose hatred or indifference, of ourselves or others. God intervenes to make sure we can be what God created us to be. That is, in one word, love. And what a grace that is.

(2024년 3월 10일 설교문 중에서 발췌)

## 4월 7일 월요일

### 선 믿음, 후 경험

최희주 집사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7-18)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강요했다. 그의 황포는 유다 자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끊임없이 기도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지켜내셨다. 그들이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 땅에 살면서 따로 또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깊어지는 신앙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자리해 갔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그런 신앙고백들의 정점에 바로 <풀무 불 사건>이 자리한다. 우상숭배에 진심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된 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불복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나, 미사엘, 그리고 아사라는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용감하게 고백하는데 그 장면이 바로 본문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 불 가운데서도 분명 그들을 건져 내실 분임을 믿고 담대하게 왕을 상대로 선포했다. 이어지는 고백은 더 놀랍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명의 주권자는 왕이 아닌 하나님임을 지혜롭게 선포한 것이다.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사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이 되어진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온 몸이 결박된 채로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 불에 들어가야 하는 찰라,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결박된 채 걸어가는 세 친구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이 뜨거운 불에 타 죽게 된 것이다 (3:22). 어쩌면 단순히 풀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묘사하는 구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박된 세 사람이 아닌 그들을 호송하던 왕의 신하만이 죽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눈 앞에서 불에 타 죽은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미동 하나없이 스스로 풀무 불 속으로 걸어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인간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물러왔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서 이미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결국 그들은 풀무 불 가운데에서 ‘신들의 아들’ 형상을 한 네번째 사람 (3:25),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다.

살아가다보면 선택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 스윙 지나가는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한가지도 포기하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이익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양손에 쥐고 다 가지려는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슷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하셨다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넘어가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내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천지만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금신상을 택할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할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풀무 불”이라는 세상의 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신앙으로 결국 세상의 죽음이 아닌 죽음을 통해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험들은 나를 지탱시키는 반석이 되어 또다른 세상의 법들 앞에서 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기도:** 매순간이 선택의 시간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기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나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뜻을 여쭙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로 인해 주권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일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 4월 8일 화요일

### My First Journey of Discipleship Training

Daniel Eujune Choi (8th grade)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Before joining discipleship training, this verse summed up my whole knowledge of Christianity. Although I went to church for many years, I never really explored the Bible or sought to understand my faith deeply, even though I had many questions. However, the discipleship training helped me discover that faith and Christianity are far more complex than I had ever imagined. I learned several important lessons that changed my understanding completely.

First, I learned that Christianity is about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built on faith, grace, and the Bible’s teachings. I understood that Christ wasn’t just a historical figure, but God’s Son who died and rose again for our sins. His life and sacrifice reveal God’s love and mercy. Through this training, I saw that Christianity isn’t just rules to follow, but a way to actually connect with both Christ and God.

Second, I found out that science and religion ask different questions—science seeks how while religion seeks why. There isn’t a “correct” answer because Christians are trying to understand why God created things, while scientists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hings were created. Christians and scientists are both simply asking different questions that do not have the same or agreed answer and there is no “right” or “wrong” theory.

Third, I came to understand that Christianity is built on Jesus’s resurrection. Without this, there would be no Christianity at all. Without the resurrection, we wouldn’t have hope, victory over death, 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The resurrection proves Jesus is God’s Son and makes his teachings and crucifixion true. It shows us that death isn’t the end for those who believe in Jesus. It is the base of Christianity.

Fourth, I discovered that sin isn’t just about breaking rules—it’s about falling short of God’s perfect standard. It’s about missing the mark of what God created us to be, living peacefully with Him, showing Him love, and following His

## 4월 9일 수요일 운전면허증 갱신 단상

김문소 은퇴 장로

will. Sin isn't just individual actions of wrongdoing; it's what separates us from God. This helped me see that God doesn't just want our obedience, but to live according to His goodness and become more like Christ.

Fifth, Christianity isn't about karma where good actions lead to good results and bad actions lead to punishment. Instead, it's about grace. Unlike karma, which depends on what we do, grace is freely given by God. We can't earn our way to heaven through good deeds. It's through Christ's sacrifice on the cross and God's mercy that we're saved. If we show our faith in God and apologize to those we've hurt, that's what matters for entering God's kingdom.

Sixth, I learned that death was the first and biggest consequence of sin. When Adam and Eve disobeyed God, death entered the world—both physical death and spiritual separation from God. Sin damages our relationship with God, but through Christ's sacrifice and resurrection, we can have eternal life.

Lastly, I understood that all sins are equal in God's eyes, regardless of their nature. Whether big or small, public or private, all sin separates us from God because it falls short of His expectations. While humans might see some sins as worse than others, to God, any sin is a deviation from his standard of purity and righteousness. Only through Jesus can that separation be fixed, offering forgiveness to all who repent and believe in Him.

This discipleship training has greatly impacted and reshaped my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I now see that faith is not about following rules, but about grace and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As I continue this journey, I am committed to deepening my relationship with God, living according to his will, and sharing the love I have received. I am forever grateful for the lessons I've learned and the transformation I've experienced, and I look forward to growing in his grace each day.

**Prayer:** Dear God, thank You for guiding us through this discipleship journey through Pastor Euntaek and opening our hearts to Your love and grace. Help us grow in faith, walk with You, and share Your light with others. May our lives glorify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디모데후서4:2)

운전면허를 갱신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까운 AAA에 가서 사진을 찍고 갱신수속을 밟았다. 임시 면허증을 받고 일주일쯤 지나니 2030년까지 유효한 진짜 면허증이 우편으로 왔다.

웬일일까? 매 5년마다 갱신하는 운전면허인데 2030년이 큰 글자로 별안간 바짝 다가온 시간으로 느껴짐은? 아마 요즘 집안 모든 가구들을 정리하면서 삶의 태도도 정리하라는 강박관념인가? 또는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량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 90:10) 말씀과 옛 어른들이 60대는 60마일,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로 시간이 간다는 말씀이 겹쳐서 다가오는 강박감정이 아닐까?

참 시간이 곱프다....

100세 인생 살이에 살아온 날들 80여년에 비해 살아갈 날이 20년이라, 참으로 너무 짧은 시간만 남은 조급함 때문인가? 우리 자녀손들을 보며 참으로 나 자신이 부족했음을 새삼 깊이 느낀다. 자녀 성서 교육을 잘 못 해왔음인가? 나의 본 됴이 부족함인가? 궁핍한 혼동의 연속이다. 그래도... 회한과 세월의 속도를 이기는 방법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처럼 각자 나름의 일상 생활을 기쁘게 계속하는 것 아닐까?

매일 식사 후에 20분씩 걷거나, 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못 읽은 명작들을 읽거나, YouTube나 TV나 Time지에서 세상을 보는 중, 한국의 불안하고 혼란한 정치상황 안정과 캘리포니아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것 등등이 있겠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는 나의 일상 중 하나는 발과 손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Audio Bible 을 wireless Bluetooth earbuds를 통해 다음날의 성경 한두장을 듣고는, 또 하루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인도해 주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잠을 청한다.

**나의 기도:** 주님, 저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아멘

## 4월 10일 목요일 참사랑

방수영 집사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여인을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여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되어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왕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된 여인은 세상의 어떠한 일도 이겨낼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함께하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내 삶 속에 남아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속에서도 따를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4월 11일 금요일 The essence of the Body of Christ

Elder Sang Kang

“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1 Corinthians 12:27)

Every time I step into my church, the Korean Church of Boston (KCB), I feel at home—a different kind of home. This place has been familiar to me for 39 years, ever since I made it my home church. Over the years, I have witnessed changes in the church building itself. When I first arrived, we were renting space from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Brookline, an American congregation. A decade later, KCB became the owner of the building, and more than a decade after that, we expanded with the ECC, adding a children’s chapel and more classrooms.

I am grateful for these physical changes, but even more so, I appreciate my church because of its people—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Some I have known for many years, others only for a short time, and some I may not know at all. Yet, every time I greet someone at church, I am thankful for their presence. They ar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the family to whom I belong. They are the ones with whom I can share the love of Christ and ask for prayers.

Some might call this view too idealistic, but this is the body of Christ—yesterday, today, and forever.

**Prayer:** Lord, I pray that my words and actions are consistent in serving you.

## 4월 12일 토요일

### 한담객설(閑談客說): 짐을 서로 지라

김화옥 집사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2)

불행한 일은 반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본의 노(老)시인의 시 한편입니다. 약해지지 말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약해지지마

시바타 도요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 있어 좋았어.

불행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 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같은 장에서 나오는 또 다른 구절입니다. 지난해 우리교회 표어이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 절망에 빠져 어깨가 무거운 아들과 짐을 나누어 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거라는 가르침이지요.

연구논문 요약본을 읽었습니다. 신문기사로 실렸는데 제목이 선행입니다. “Doing good is good for you (선한 일을 행하면 네게도 선한 일이다)” (The Washington Post, Nov. 28, 2024). 신문기사는 계속됩니다. 남을 돕는 일은 선한 일임이 자명한데,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하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우울증 증상도 확연히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걸 Feedback loop (되먹임)라 한다던데, 행복한 감정과 이타주의는 쌍방향관계라 하더군요.

칼럼의 결론입니다. “What a wonderful way to feel happy.”

**나의 기도:** 주님, 당신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순종하며 겸허히 받겠습니다. 불행하다고 한숨쉬지 않겠습니다. 괴롭다고 우울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이웃의 어깨에 진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나누어 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 4월 13일 종려주일 (Palm Sunday)

### Loving God and God’s People

Rev. David Cho (조은일 목사)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s.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Deuteronomy 6:4-9)

The passage above is known as the “Shema Prayer.” It is the oldest fixed daily prayer in Jewish culture and tradition, recited morning and night since ancient times. The Shema has been the prayer that Jewish families and communities learn, memorize, recite, and share all over the world, throughout the Jewish diaspora. As a way to live out the commandment, Jewish parents teach their children this prayer so that they would never lose their Jewish identity and remember that they are God’s “chosen people.”

Throughout history, the message of the Shema— “to love God with your heart, soul, and strength”—has protected and empowered Jewis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as they have survived various forms of persecution, including the Holocaust in Europe and anti-Semitism in North America for centuries. Even in Exodus, as the Israelites struggled for 40 years in the wilderness on their way to the Promised Land, God continued to remind them: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bondage” (Exodus 20:2).

Remembering who God is by reciting, memorizing, and studying Scripture is something all of God’s children are called to do daily. Especially during challenging times, we need to hold on to this practice even more, as it is through God’s Word that we overcome struggles in life. In times of crisis, grief, and uncertainty, God reminds us to “love God” with all that we are so that we can hold on to His hope. Even Jesus, during the forty days in the wilderness, overcame the temptations presented by Satan through God’s Word. Jesus responded to Satan,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Matthew 4:4).

The message of the Shema emphasizes that parents must teach their children how to live by following and loving God’s Word, especially in times of great challenges. This is the greatest gift and blessing that parents can pass down to their children: educating, guiding, and helping them study, reflect on, and remember God’s Word so that they can love God with their whole hearts and walk with God at all times.

As you continue this Lenten journey, remember and practice what the Shema teaches us: seek God and love God together as a family during this time of uncertainty. Some of us, for various reasons, are not able to seek God with our parents or children. That’s okay. You have spiritual family members in your church. May we seek God and love God together by diving deep into God’s Word during this season of Lent, and God will be pleased.



## 4월 14일 월요일 생명의 빛 (the light of life)

박신영 장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1:4)

청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평생을 전장에서 보냈다. 죽음에 임박해 그는 온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 이방 신들 가운데 섬길 자를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평소 수없이 외쳤을 그의 말을 무시하며 우상숭배로 빠져가던 백성들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쏟아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헌신과 결의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했다.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여호와 신앙이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세대가 바뀌면서, 이들은 점차 여호와 신앙을 잃고, 딴 세대가 되어버렸지만...

어느 시대나 진리를 외치는 삶은 힘들고 험한 길 같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다. 왜 진리는 환영을 받지 못할까? 빛이 비쳤는데,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세상은 왜 어둠을 더 좋아할까?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리를 외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인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세상을 진리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고국에서 국민주권을 도둑질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 천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훌륭한 업적을 만든, 가장 살기 좋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그런데 이 나라의 기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자유시장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국가지도자의 헌신과 결단이 국민들을 바르게 이끌고 이 위기를 거치면서 반드시 보다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기를 기도한다. 특히, 사회 곳곳에, 심지어 한국교회에도 만연된 거짓을 보며, 도산 선생이 청년들에게 한 당부 “죽더라도 거짓 없어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는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 개인과 사회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돌아오기를 기원해 본다. 거짓 위에 개인이나 사회를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나의 기도:** 주님, 거짓에 속아 무너져가는 우리 개인과 사회를 생명의 빛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 4월 15일 화요일 초심불망 (初心不忘)

이재익 집사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3)

성경에는 인간 본연의 어둠과 비루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죄로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믿음의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순간들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출애굽 직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중 하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이 땅을 약속으로 받은 뒤 45년이 흘렀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85세의 갈렙만이 그 다음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배분한 땅은 주인이 없는 곳이 아니었기에 정복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 85세의 갈렙은 45년전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했던 무서운 아낙 사람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축복가운데 갈렙은 헤브론 산지의 아낙자손을 쫓아내고 그곳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노년의 용사 갈렙은 젊은 정탐꾼이었던 때의 신체적 강인함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한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요절하지 않으면 변절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오랜 시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이 참으로 쉽게 세월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퇴색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시간이 흐른 뒤 육체를 위한 것으로 바뀌는 가슴아픈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노년의 갈렙의 모습은 더욱 별처럼 빛납니다.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마지막까지 처음 그 믿음을 아름답게 유지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이 미약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4월 16일 수요일

## My Confession

### – Gratitude and Forgiveness

Grace Kim (7th grade)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to the paralytic, “Child, your sins are forgiven.”” (Mark 2:5)

I believe that over the last few months of participating in Discipleship Training, I have learned a lot about Christianity and grew as a Christian. At first, I honestly didn't know too much about the basic beliefs and traits of Christianity. But now that I was able to take a deeper dive, I have shaped a little bit of understanding. I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who was crucified and raised from the dead for the salvation of us. However, we must trust in Him alone for our salvation. I learned that Jesus is both 100% man and 100% God. One of the things that Pastor Euntaek taught me throughout Discipleship Training that really stood out to me is gratitude. Offerings are a form of our gratitude to God and it shapes our lives. I learned that we should give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no matter how great or how bad of a situation we are in, we should always make time for Him, to thank Him and pray to Him. I remember when Pastor Euntaek said “God gives us greater things to those who are grateful” it really stuck with me. It urged me to try and show more gratuity in my life to those around me and to God.

Another big point I learned during Discipleship Training was that God's love is unconditional and He loves everyone. This was well represented while reading the gospel of Mark specifically. In Mark 2:5, Jesus heals a paralytic because of its friend's faith. This chapter truly epitomized that God could hear our prayers for other people who may not be faithful. This gave me hope to pray for my friends who aren't faithful because God's love goes on forever to everyone. Discipleship Training has really opened my eyes to the fact that I will always be protected by God's love and he will always have a path for me. I will try to always turn to Him in my troubles and pray to Him for things that I struggle with.

**Prayer:** Dear God, Thank you for your forgiveness and unconditional love. In Jesus name, we pray. Amen.

4월 17일 목요일

## This is my church. I gotta finish

홍민기 집사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17)

몇해 전 80년대 한국 이민자들의 삶을 그려낸 ‘미나리’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영화는 한국계 미국인인 감독 개인의 경험에 기초해 특별한 것 없는 80년대 이민자들의 삶을 그렸을 뿐임에도 국가와 세대를 초월한 울림을 줬다는 평을 받았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세간의 호평과는 달리,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리얼해서’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없었다는 의외의 감상도 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 가족의 삶을 보다보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른다는 거였죠. 그럴 법도 한 것이 영화 속 시점보다 30년은 지나서야 미국으로 건너온 저조차도 영화 보는 내내 ‘어딘가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조금의 과장을 보태면 거의 모든 등장인물 속에서 저랑 닮은 구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할까요?

한국인이 아닌 등장인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화에는 주인공의 농장에서 일하는 ‘폴’이라는 중년 백인 아저씨가 등장합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이기도 한 폴은 성실한 일꾼이자, 농장에서 자주 큰 소리로 귀신 쫓는 기도를 할 정도로 ‘신령한’ 크리스찬이죠. 어느 일요일, 주인공 가족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운전해 돌아오는 길에 큰 나무 십자가를 등에 걸쳐 메고 길을 따라 끌고가는 폴을 마주치게 됩니다. 주인공이 ‘도대체 뭐냐, 좀 태워줄까’ 하고 묻자 폴이 답하죠.

“이게 내 교회야...난 이걸 끝마쳐야해 (This is my church... I gotta finish).”

개인적으로 영화를 통틀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으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이뤄가는 폴의 사명감에 감동하다가도, 혼자만의 세계에서 너무 비장하여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가 닿을 수 없는 ‘이상한’ 지경에 이른 그의 모습이 혹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느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에도 언제나 주변의 낮은 곳에 머무셨던 그 분. ‘먹을 것을 탐하는 세리와 창녀의 친구’ 라고 불리며 안식일에도 주저 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주린 자들을 먹이신 그 분은 마지막 가실 때에도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늘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분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내가 이루어 가려는 교회를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기도:** 천대받고 곤궁한 자들의 친구되신 주님, 세상에서 유리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소서.

## 4월 18일 성금요일 (Good Friday)

###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His greater purpose

Deacon Joseph Kim

“Likewise the Spirit helps us in our weakness. For we do not know what to pray for as we ought, but the Spirit himself intercedes for us with groanings too deep for words. And he who searches hearts knows what is the mind of the Spirit, because the Spirit intercedes for the saints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6-28)

When I was a child, I was always afraid of doing the wrong thing. I was afraid of judgment from my parents, teachers, and peers, to a debilitating point - where I would avoid speaking altogether unless I had absolute confidence or conviction in what I wanted to share. This carried over to all my interactions, including sharing and participating in church settings. As a child, this meant that I was hesitant to share my experiences, and even in adulthood it manifests as self-doubt for whether my understanding of God is sufficient to teach others or make recommendations as a member of the church.

Verses like Romans 8:26-28 have guided me to lower my walls and take courage in acting on behalf of God as long as my heart is in the right place. This reading in combination with my own personal experiences has led me to believe that despite our inadequacies as Christians and human beings, Jesus died for us so that the Spirit may intercede in places where we may be lacking. While we may be flawed in how we attempt to enact God’s will, He is able to search our hearts and instead use our well-intended actions, whether good or bad, in their entirety for His prevailing purpose.

I’ve found over time that there is no singular understanding; there’s no one person who has it all figured out and speaks on behalf of Jesus word for word. We as flawed human beings can only expend our earnest effort in learning who He is and devoting our time to meditation, prayer, and service

to best uncover God’s will. Despite this effort, there are often rifts within the church and even amongst Christians as a whole about how to navigate certain situations and conflicts. For a long time, this bothered me that there seem to be questions that fundamentally cannot be answered straightforwardly by even Christians who have devoted their lives to studying the Bible. If even these scholars cannot seem to agree on a singular answer, how can I not help but question the Bible’s authority as the word of God? Dr. Tim Mackie of the Bible Project eloquently explained that this in fact may not be a deficiency but rather may be by design: “[...] maybe the function of the Bible isn’t to give us clarity. But it’s trying to create a venue within which we go to wrestle with God with our deepest questions. And what we discover is not a systematic answer; what we discover is a portrait of God’s character that emerges throughout the story that we are to take with us as we go into the complexities of reality”.

Dr. Tim Mackie’s assertion in turn guides me to believe that being a part of church too is not necessarily about having all members in complete concordance with one another. We may have our individual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and differences in priorities as Christians, and that in itself is okay - in fact, it gives us the opportunity to wrestle with our assumptions and ideologies and prompts us to challenge and strengthen our understanding of God, given that we can understand where each of us comes from and have respect for one another. This may mean that we cannot 100% agree every time about how to best serve God, but more importantly this disagreement should guide us towards discussion for how we can best do so. And ultimately, while our resulting actions may not be perfect in and of themselves, we may have faith that the Spirit will intercede on our behalf as people who love God and incorporate it all into His greater purpose.

**Prayer:** Dear God, we humble ourselves before you and bend our ears in listening for your purpose. May you cultivate us to be able to bear your wonderful fruit. In Jesus’ name we pray, Amen.

## 4월 19일 토요일

###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박예원 전도사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12-13)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저희는 주에 두 번은 필수로 다같이 채플을 드려야  
했습니다. 4년을 다녔다보니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설교들 중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교회에 올 때에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그분을 교회 안 십자가에 못박고 있기에  
그분이 교회 밖으로 나오실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믿음과 삶의 불일치로 가득한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꿰뚫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주님, 힘들게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뵈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만 세상으로 나가야하니,  
주님께서 계속 교회 안 십자가에 못박혀서 계셔주세요. 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찾아뵈고 문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에는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옵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은 선포되는 것만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사고로 살아내는 삶은 참으로 좋아보입니다. 교회에 계신 주님을 뵈  
때에는 내 안의 가장 거룩한 광채를 꺼내어 그분께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올 때에는 그분을  
뒤로 한 채 이면에 벗어두었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다시 쓴 채 마음껏 살아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달고도 오묘한  
반면 (시편 119:103), 주어진 현실은 매운맛과 쓴맛이 강하니 그 괴리감에 어찌보면 우리는  
이 두 세계를 구분지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을 적,  
그분의 모습이 변하시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노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 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목격하며,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답하지 않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그렇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우리는 그 산에서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닌, 구름 속에서 들은 소리와 두려움 속에서 손 내밀며 두려워말라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 후, 그 산을 내려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분리된 두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그분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해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로서 부르시고 바라봐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거워 보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놓여있습니까? 성령으로 허락하시는 그분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이를 붙들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중심으로  
모시는 우리 보스톤한인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의 모퉁이에  
두었던 그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삶의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든든히 붙들어주시사, 당신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 4월 20일 부활주일 (Easter Sunday)

### 마지막 아담: 살려 주는 영

이영길 담임목사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고린도전서 15:45-46)

팀 켈러 목사의 저서 중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에 요나서 강해 시 저는 목사가 지은 prodigal prophet이라는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탕자 선지자’라고 할까요? 그 제목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다시스로 갔으니 말입니다.

비슷한 책 제목이 있는데 ‘Prodigal God’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두 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너무 절제 없이 막 퍼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 설교 내용에 관계된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의 유산을 다 삼키고 온 탕자에게 무지무지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까지 끼워줍니다. 곧 아들됨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절제를 못합니다. 아들은 자기의 유산만 다 써버리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보다 몇 배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받아 다 쓰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전에 내주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낭비를 하고 계시니 켈러 목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정말로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은 단지 재산을 낭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줌으로서 엄청난 것을 낭비하실 뜻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탕자를 아들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낭비하실 수 밖에 없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낭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대박이 터집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려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살려 주는 영이 되셨기에 수많은 탕자들조차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외아들만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셀수 없는 아들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낭비하시길 잘 하신 것입니다. 탕부 하나님은 이제는 폭소를 터뜨리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3/31/2024 부활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56 | Pag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817.739.2663 / www.kcboston.org

편집 : 배광현, 이혜승, 윤경문 표지 디자인 : 배광현

19번째 목회집